

무안 연꽃축제 관광객 고작 2만명

무더위에 차별화 된 프로그램 없어 흥행 실패

17억 지출 예산남비·준비기간 짧아 졸속행정 비난

무안군이 4년 만에 '연꽃축제'를 부활시켰으나 축제기간 내내 35도를 넘는 폭염으로 주민들과 관광객들로부터 외면을 받아 예산남비와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5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26~29일 4일 동안 열린 '연꽃 축제'에 첫날 4000여명 등 총1만5000명에서 2만여 명이 다녀갔다.

군은 이번 연꽃축제에 ▲중앙무대 설치와 공연 관련 3억6500만원 ▲홍보 및 일반경비 3500만원 ▲중앙무대 시설그늘막 시설공사 3억4000만원 ▲전통공연 조성비 8억4000만원 ▲일반시설물 3500만원 ▲일로 품바 페스티벌 8000만원 ▲무안 분청 문화제

3000만원 등 총 17억2500만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하지만 당초 우려했던 대로 차별화된 축제 프로그램 없이 과거 베끼기식 구색 맞추기 프로그램과 30도 넘는 폭염 속에서 진행되다 보니 경쟁력 있는 축제로서의 한계를 드러냈다.

올해 연꽃축제는 4월 11일 김철주 군수가 당선되면서 당초 축제 개최 예정에 없다가 추경에서 3억6500만원의 축제 예산을 반영할 만큼 급조됐고, 2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준비하다 보니 졸속 운영의 어려움도 뒤따랐다.

특히 불발더위에 축제장을 찾은 사람들은 축제 프로그램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고, 연꽃축제·분청문화제·품바 페스티벌이 함께 열려 축제 정체성 혼란을 초래했다.

연꽃축제인데도 축제에 걸맞은 프로그램은 전무했고, 메인 행사는 4일 동안 열린 품바축제가 됐다. 그동안 무안군과 일로 품바 보존회는 연꽃축제 기간에 '품바 페스티벌'을 7회 개최하는 등 품바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품바를 무안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육성해 왔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올해 계속적인 폭염이 11월째 이어지면서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내년 연꽃축제에는 더위를 식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고 올해 축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안 분청문화제 역시 백련지 전통 공원에서 4일 동안 열렸으나 군의 적극적인 홍보가 없어 그들만의 행사로 평가를 그치고 말았다.

전직 공무원 정모씨는 "회산 백련지(10만여 평)는 이른 3월부터 10월 중순까지 백련지에 연잎이 있어 보고, 즐길 수 있는 사계절 관광지로서 갖추어 있다며 연일 문화축제 관광지역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올해 계속적인 폭염이 11월째 이어지면서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내년 연꽃축제에는 더위를 식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고 올해 축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불발더위가 계속된 지난 5일 신안군 지도읍 송도위판장에 민어가 가득 쌓여 있다. <신안군수협 제공>

'여름 최고 보양식' 민어가 돌아왔다

임자 해역 풍어... 지도 송도위판장 2일간 30t 위판

'여름철 최고의 보양식'으로 손꼽히는 민어(民魚)가 돌아왔다.

신안군수협에 따르면 최근 신안 임자, 영광 해역에서 민어잡이가 풍어를 이루며 지난 5일 지도 송도위판장에서 전날 14t에 이어 16t의 민어를 위판했다. 이를 통한 위판량은 30t으로 민어잡이 철 최고의 어획량이다.

한때 어획부진으로 1kg에 6만원 이상까지 치솟은 민어 수치 최상품은 kg당 3만원, 보통 2만원, 암치 1만원에 위판됐다.

남회현 신안수협 북부지점 판매과장은 "해파리떼와 금어기를 맞은 첫새우잡이 어선까지 민어잡이에 나서면서 올해 들어 최고 어획량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민어잡이 어선 30~40척에 일부 첫새우잡이 어선이 가세해 조업하고 있다. 많이 잡는 배는 300마리 이상 잡을 정도로 어황이 좋다.

민어는 6월 중순부터 7월 말 알배기 직전까지 알맛이 맛있다. 알맛이 알을 배기 시작한 8월 초부터는 수컷이 맛있다. 민어는 소화 흡수가 빨라 어린이 발육촉진이나 노인 등의 체력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농업박물관에서 추억 만드어요"

봉숭아 물들이기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영암 농업박물관에서 봉숭아 물도 들이고 허수아비 만들기 체험하셔요"

전남도 농업박물관은 이달 말까지 모든 관람객을 대상으로 박물관 내 야외 정자에서 '봉숭아 물들이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박물관은 이와 함께 오는 19일 '2012 허수아비 만들기 경연대회'를 열기로 하고 16일까지 참가 가족을 선착순 모집한다.

60여 가족 250명 가량을 접수할 예정으로 초등학교생 동반한 가족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 가능하다.

참가 문의 및 신청은 농업박물관 전화(061-462-2796~9)나 이메일(mh3812@korea.kr)로 하면 된다.

강석오 전남도 농업박물관장은 "점차 사라져가는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 두가지 행사를 마련했다"며 "허수아비 만들기 입상작은 10월까지 야외에 전시해 관람객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맛좋은 무화과 나왔네

해남군 송지면 군곡마을에서 시설 무화과 수확이 한창이다. 해남지역은 송지면과 북평, 북일면을 중심으로 30여 농가 14ha에서 시설 무화과를 재배, 올해 12억원의 농가소득을 기대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고흥군 추경예산 388억 군의회 승인

고흥군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88억원이 지난 3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됐다. 고흥군의 이번 추경 예산 편성으로 군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159억 원, 특별회계 196억 원으로 본예산 3967억 원보다 388억 원이 증가한 4355억 원으로 증액됐다.

각 분야별 예산은 ▲문화 및 관광 분야 63억 원 ▲보건·환경보호분야 26억 원 ▲사회복지분야 40억 원, ▲

농림·해양수산분야 84억 원 ▲일반행정분야 122억 원 ▲도로·교통분야 53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군비부담 채무 124억원 전액과 동강 농공단지 조성 채무 14억 원 등 총138억 원의 채무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지방채무 감축의 노력을 강화하는 등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동부취재본부=주귀중기자 gju@

전남産 가공음료 유통·물류시스템 정착

8종류 다중이용시설 245곳 납품

7개월만에 월 매출 3000만원 넘어

전남도가 로컬푸드(local food)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전남산 가공음료 유통·물류 공동시스템'이 정착되고 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신규로 전남산 가공음료 8종을 농협 하나로마트, 병원·장례식장, 골프장, 대형슈퍼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245개소에 고정 납품했다.

그 결과 1월 200만원이었던 매출액이 매월 50% 이상 늘어 7월에는 3000만원을 돌파했다.

전남산 가공음료 유통·물류 공동시스템은 마케팅·영업능력, 물류 효율화 등 모든 면에서 대기업에 뒤떨어진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도에서 신규 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지역 생산업체는 가공음료를 생산해 장성 한마음공동체 물류센터에

일괄 납품하면 전남도와 한마음공동체에서 판매업소 확보를 비롯해 유통·물류·정산 등을 총괄하는 체계다.

현재 판매업소에 납품되는 제품은 나주 동의나라의 '뽕잎차', 장흥 피앤케이의 '헛개비밀', 해남 부뚜막 식품의 '뽕음초', 무안 현대영농조합의 '양파순', 진도 울금 원영농조합의 '울금 아리랑', 보성농협의 '보성녹차', 남도유류의 생수 '지리산 천년수' 등 8개다.

이들 제품은 전남 식품산업연구센터 박사급 연구진의 기술제휴를 받아 개발된 음료가 대부분으로 전남에서 생산되는 무농약 이상 친환경 농산물 원재료 사용 비율이 대기업 제품보다 높아 안전성·기능성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도는 시스템이 정착되고 소비

자 호응도가 높아짐에 따라 8월부터 장흥 표고음료, 영암 무화과양갱이 등 4종을 추가해 판매 품목을 12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남산 가공음료 판매업소 500개소 이상 확보하고 국제 농업박람회 등 국제행사, 전국 규모 체육대회, 지역 축제 등에 전남산 가공음료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 연말까지 월 매출 1억원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명칭한 전남도 식품유통과장은 "초창기 소비자 인지도가 낮아 전남산 가공음료 판매업소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농협 등 유관기관과 많은 판매업소 대표들의 도움을 받아 시스템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며 "앞으로는 도내 어디서나 전남산 가공음료 판매업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판매업소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용백기자 kyb@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무료전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나 덤핑전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50만원~

특수가발 발매!!!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 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안기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검색

대산프리모가발